



# 이슈와 논점



이슈와 논점 | 제1557호 | 2019년 2월 25일 |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 발행인 이내영 | www.nars.go.kr

## 국회 대표단의 방미(訪美) 의원외교 활동의 성과 및 과제

김도희\*

### 1. 들어가며

지난 2019년 2월 10일부터 17일까지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당대표 및 원내대표 등으로 구성된 국회 대표단이 미국을 공식 방문하였다.

이번 국회 대표단의 방미 목적은 “새로이 구성된 미국 의회 지도부에 남북·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더 큰 진전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국의 의회대의회 간 허심탄회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었다.<sup>1)</sup>

이를 위해 국회 대표단은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미 연방 하원의장과 상·하원 주요 인사들을 비롯한 대북정책 관련 국무부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중요성 및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양국의 공조 방안에 대해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이번 방미에는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외에도 외교통일위원장과 간사단 등 각 당의 대미 외교 전문가로 꼽히는 의원들이 모두 참여하면서 초당적인 역대 최고위급 대표단이 구성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이 글은 이번 방미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정리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국회 대표단 방미(訪美) 주요 일정

현지 시간 2월 11일 오전 워싱턴 D.C에 위치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헌화로 공식일정을 시작한 국회 대표단은 존 설리번(John J. Sullivan) 미 국무장관 대행(Deputy Secretary of State) 및 스티븐 비건(Stephen Biegun)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United States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와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낸시 펠로시 미 의회 하원의장을 비롯하여 케빈 맥카시(Kevin McCarthy)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엘리엇 앵겔(Eliot Engel) 하원 외교위원장을 면담하고, 미 의회 내 지한파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Congressional Caucus on Korea) 및 한국연구모임(Congressional Study Group on Korea, CSGK) 소속 의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회의장은 뉴욕의 코리아 소사이어티 방문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한반도와 세계 평화 위해 전진!”을 주제로 기조연설

1) 「문희상 국회의장, 미국 공식방문」, 국회 보도자료, 2019년 2월 8일자

을 하였고, 흥진 임시의정원 의장의 유족 홍창 휴 여사와 면담하며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식에 여사를 초청하였다.

이 외에도 국회 대표단은 워싱턴 D.C, 뉴욕, 그리고 LA에서 동포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교민들을 격려하였으며, 미국 주요 방송사인 FOX NEWS에서 진행된 국회의장 인터뷰를 통해 이번 방미의 목적과 성과를 설명하고, 2차 북미정상회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 3. 방미(訪美)의 주요 의의 및 성과

#### (1) 초당적 의원외교

이번 방미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미 의회와 조야에 전달하기 위하여 여야를 포함한 5개 정당의 구성원들이 초당적으로 모두 대표단에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각 당 대표 또는 원내대표가 모두 참여하였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과 각 정당별 간사들이 방미 대표단에 참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미외교의 전문성을 갖춘 각 정당의 의원들도 대표단에 포함되었다([표 1] 참조). 이와 같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약 2주 정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우리 국회가 초당적 대표단을 구성하여 일치된 목소리로 대미외교에 나섰다. 이는 그 자체로도 우리 국민들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함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메시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2)</sup>

또한, 미 의회의 주요 인사 및 코리아 코커스와 한국연구모임 소속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국회 대표단은 이번 방미의 목적으로 한미동맹의

2) 「北비핵화 의구심 지우고 韓美공조 확인」, 머니투데이, 2019년 2월 18일자

중요성을 강조하고 제2차 북미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대한민국 국회의 초당적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미국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sup>3)</sup>

[표 1] 국회 대표단의 구성

구분	성명(정당)
국회의장	• 문희상 국회의장
당 대표	• 이해찬 대표(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대표(민주평화당) • 이정미 대표(정의당)
원내대표	• 나경원 원내대표(자유한국당) • 김관영 원내대표(바른미래당)
외교통일위원회	• 강석호 위원장(자유한국당) • 이수혁 간사(더불어민주당) • 김재경 간사(자유한국당) • 정병국 간사(바른미래당)
의원단	• 진 영 의원(더불어민주당) • 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 • 박주현 의원(바른미래당) • 김종대 의원(정의당)

주: 국회의장실 소속 공무원(9명) 및 국회사무처 국제국 소속 공무원(7명)도 방문단에 포함되어있으나 표에서는 제외함  
자료: 국회사무처 제공 자료

#### (2) 의원외교의 활동 범위와 지평 확대

기존의 의원외교가 개별 의원들 혹은 정당별 대표단 구성을 통해 진행된 것과는 달리 이번 방미 대표단에는 국회의장과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 및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모두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즉, 이번 방미는 최고위급 국회 지도부에 의한 공식적 차원의 외교라는 점에서 최고위급 및 공식적 차원으로 의원외교의 지평과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3) 「문희상 국회의장, 케빈 맥카시 美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면담 및 美 의회 코리아 코커스·한국연구모임(CSGK) 오찬 간담회 가져」, 국회 보도자료, 2019년 2월 13일자

### (3)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 불식

이번 방미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대표적인 예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과 의 면담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였으나, 이후 비공개 면담에서 펠로시 의장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회의적 시각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회대표단은 “분단의 고통을 겪은 한국인의 시각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프로세스를 비추어 줄 것을 설득하며 긍정적 방향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sup>4)</sup> 또한 경제 회생이 북한 정권의 사활적 목표이므로 북한은 비핵화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sup>5)</sup> 그리고 마침내 면담이 끝날 무렵 펠로시 의장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낙관적(optimistic)이지는 않지만 희망적(hopeful)이고, 내가 틀리고 당신들이 맞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음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sup>6)</sup>

이를 볼 때 적어도 이번 방미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북한 비핵화에 대해 한 목소리로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여 워싱턴 내에 희망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과 비핵화 측면 외에 한반도 평화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환기하였다는 점은 적지 않은 성과로 보인다.

4) 「미 하원의장, 문희상 면전에 “김정은 진짜 의도는 남한 무장해제”」, 머니투데이, 2019년 2월 14일자

5) 「[기고] 북·미 정상회담 앞서 한·미 공조 다진 국회대표단」, 경향신문, 2019년 2월 21일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FOX News 인터뷰에서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100% 확신할 수는 없으나, 북한이 경제 회생이라는 국가 사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재 해제가 필수이므로, 이를 위해서 비핵화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음(「S. Korea speaker Moon Hee-sang: Second Trump-Kim Summit to ‘determine fate of our country’」, FOX 11, Feb.15.2019.)

6) 「문의장·여야 방미단, 북 비핵화 의구심 제거 주력… 낙관론 설파」, 연합뉴스, 2019년 2월 16일자

### (4)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

이번 방미에서 국회 대표단은 매 계기에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한미동맹 약화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국회 대표단은 존 설리번 미 국무장관 대행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의 면담에서 북한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FFVD)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공고한 한미동맹 및 대북정책 공조를 재확인하였다.<sup>7)</sup>

또한 국회대표단은 국제협력·분쟁 분야의 세계적인 연구기관인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 주최로 열린 ‘한반도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 비핵화와 선순환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한국의 역할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 분명한 대북지원 의사와 능력이 있다는 진정성을 미리 보여줘 핵 포기 결단을 돕는 것”임을 강조하였다.<sup>8)</sup>

이와 같이 북한 비핵화 진전에 따른 한미동맹 약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미동맹에 의한 대북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점 역시 이번 방미의 중요한 성과로 볼 수 있다.

### (5) 교민 사회와의 소통 강화

이번 방미에서 국회 대표단은 워싱턴, 뉴욕, LA에서 현지 거주 동포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표단의 방미 성과를 설명하면서, 향후 개최될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중요성을

7) 「Deputy Secretary Sullivan’s Meeting With Republic of Korea’s National Assembly Speaker Moon Hee-Sang」, U.S. Department of State, Press Release, February 11, 2019

8) 「문희상 국회의장, “한국, 북한이 핵 포기할 때 분명한 대북지원 의사와 능력이 있다는 진정성을 미리 보여줘 핵 포기 결단 돕는 것”」, 국회 보도자료, 2019년 2월 12일자

강조하였다. 또한 교민들의 현안을 청취하고, 성과를 격려하였다. 특히, 국회 대표단은 뉴욕 동포 간담회에서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에서 ‘유관순 어워드’를 제정했다는 소식에 동포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을 전하였다.<sup>9)</sup>

#### 4. 향후 과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전달하기 위한 금번 국회대표단의 방미는 소기의 성과를 도출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금번 방미에는 여야 5개 정당이 대표단에 참여하여 대한민국 국회의 초당적 의지를 보여주었고 이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번 방미단을 모델로 하여 앞으로도 국가적인 현안이나 국익과 관련된 중대 사안의 해결을 위해서 초당적 의원외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금번 방미에서 우리 대표단은 미 의회와 조야에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여 분위기를 환기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향후 국회차원의 대미외교의 지속성 담보를 위한 제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시도부 차원의 방미외교를 정례화하거나, 국회 차원의 상시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례적인 회합을 갖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셋째, 현재 한미 간 공식 의원외교 기구로서 ‘한·미의원외교협의회’<sup>10)</sup>가 있기는 하나, 2015년 이후 미국 의회 측에서 협의회 구성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11)</sup> 따라서 새로 시

작된 미 의회 116대 회기에서는 미국 측 협의회가 구성되어 한미 의원 간 공식 대화채널이 복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정체성이 유사한 ‘정당’이나 ‘상임(또는 특별)위원회’ 별로 상시적인 대화가 가능한 채널을 구축하는 등 의원외교를 더욱더 확대·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번 방미 대표단에는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 및 정당별로 대미외교에 전문성이 높은 의원들이 포함되었다. 이처럼 우리 국회 내에도 특정 국가나 분야에 전문성이 높은 의원들이 있으나 이들의 전문성이 의원외교에서 널리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의원외교의 활동영역을 특화·전문화하여 의원의 전문성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sup>12)</sup>

#### 5. 나가며

이번 방미는 미 의회와 조야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분위기를 환기함으로써 대미 의원외교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고, 향후 국회의 의원외교를 더욱더 확대·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향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른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 과정에서 의원외교를 통한 양국 의회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이슈와 논점」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정보 소식지입니다.

9) 「문희상 국회의장, 미국 뉴욕에서 동포 초청 만찬간담회 가져」, 국회 보도자료, 2019년 2월 14일자

10) 20대 국회의 한미의원외교협의회는 회장 정우택 의원(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총 10인의 임원과 40인의 의원을 회원으로 구성됨

11) 「美 통상압박 거센데... ‘한미 의원외교’도 막혔다」, 매일경제, 2018년 2월 20일자

12) 유웅조, 「한국 의회외교 현황과 발전방향」, 『이슈와 논점』 제138호, 국회입법조사처, 2017년 11월 30일